



해인 스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해인 스님은 사람이 저마다의 도리를 다할 때 자기를 바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성불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5월 9일 울산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법당. 법상에 오른 단양 광덕사 회주 해인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며 불자들의 감탄사와 웃음도 계속된다. 법회라기 보다는 편안한 대화마당 같다.

유쾌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한 해인 스님. 자신의 제자든 아닌든 간에 후학들에게는 한없는 애정을 쏟아 붓는 해인 스님.

해인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출·제가 막론하고 소극적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동체대비 보살정신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 따라서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해인 스님의 소신이다.

그런 스님이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법문에 치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원효대사와 이차돈을 좋아합니다. 두 분 다 불교와 국가를 위해 신명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는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이 시대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문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해인 스님이 존경하는 분은 또 있다. 바로 자장율사와 은사인 일타 스님이다. 자장율사는 철두철미하게 계율을 지킴으로써 스님으로서 가져야 할 본래 면목을 보여주시고, 일타 스님은 무한한 자비와 용서로 사람의 심성을 순수하게 만드셨다고 한다.

해인 스님이 후학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존경하는 스님들과 은사 스님의 그런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늘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면서 그저 빙그레 웃으세요. 하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또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느낄 수 있지요. 원력은 크신데 욕심도 없으시고, 불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시

“제 할 도리 다 하면 족하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해인 스님 (단양 광덕사 회주)

조.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은사 스님은 아니지만 그런 스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주지 덕륜 스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좌스님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귀뜸한다.

단양 광덕사에서 울산 연화사까지는 적어도 4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다. 하지만 이 먼 길도 벌써 3번째다. 작년 9월 개인 연화사가 훌륭한 강사진을 갖추고 불교대학을 열면서 도심포교에 나서자 어떻게든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해인 스님은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도 결코 거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루를 108배 참회발원으로 여는 일이다. 그리고 은사 스님께 올리는 문안 인사도 빼놓지 않는다. 은사스님이 입적한지 7년째지만 지금까지 단 하루도 문안 인사를 올리지 않은 날이 없다. 연화사 법회 후 곧바로 영천 은해사에 온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즐거자로서, 또 제자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저것 얽매이지는 않아요.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안 오면 밤늦게까지 참선을 하거나 경을 읽기도 해요. 글씨도 쓰지요. 지루하다 싶으면 도량 일도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땐 며칠씩 기도도 하고...” 물 흐르듯이, 하지만 결코 게으른 법이 없는 해인 스님.



해인 스님이 은해사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스님의 일상.

“며칠 후부터는 묵언을 할 겁니다. 3개월 정도요.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내세울 게 없어요. 기자님도 한 번 해보세요. 묵언을 하면 자신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이 부족하다 하지만 해인 스님의 하루하루는 수행의 연속이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다면 어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어찌 부처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해인 스님은 만나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화두 하나를 꼭 던진다. 정작 자신은 말로 내려놓으면서,

매일 108배 · 은사스님에 인사 한달 중 절반 전국돌며 법문

연화사에서의 법문 내용 중 <현수경> 독송 시 열게 되는 15가지 나쁜 것과 15가지 좋은 인연에 대해 다시 여쭙더니 바람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인다. 노트에는 이 내용 외에 단양 광덕사에 건립 중인 100만 불전 상량문을 직접 쓴 것과 지난해 열린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100재 때 지은 추모사, 부모은중경의 일부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필요하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메모해 두었던 것이다.

“나는 내 본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나 분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해인 스님은 바람에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메모를 해둔다.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고, 내가 무시 받지 않으려면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은 자기 주인공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견성성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저마다 도리를 다한다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법문을 다닐 때도 자가용이 없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한다는 해인 스님은 “연세도 있으시니 자가용을 구입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빙그레 웃으며 은해사 단무각 앞 꽃밭에 앉는다. 비 온 뒤 물기를 머금은 꽃들이 싱그럽다. 꽃을 뚫시도 좋아한다는 스님.

“우리 보살들 비 맞고 추웠겠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잘도 사시네.”

꽃을 보살이라 불렀다. 한 자리에서 세상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는 꽃. 오늘 은해사 단무각 꽃밭에 새 꽃이 피었다.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64만평 광덕사 건립 불사

해인 스님은 1943년 남제주에서 출생한 해인 스님은 15살 때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동화사 금당선원 증지에서 10만거를 성만했으며, 1970~1971년 해인사 장경각에서 100만배 기도를 회향했다.

약천사를 중창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시켰고, 현재 단양 광덕사에서 64만평 규모의 세계일화도량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원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초청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해인 스님.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5기생 모집

- 대학실림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 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화할 불교사상을 널리 퍼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 교과목**
 -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서, 율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 서예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1:00 ~ 15:00
-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6년 5월 10일 ~ 5월 27일 ●개강일시 : 2006년 6월 2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특전**
본대학은 조종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례에 특전부여
- 문의**
경기북부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저 자 : 백설은 스님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금 액 : 35,000원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鑄鐵鑄造工法으로 10,000년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중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원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사대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중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중으로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만

● 본사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곡리 406-28
www.seungjeongsa.co.kr / E-MAIL : seungjeongsa@hotmail.com
대표 : 범사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용서하고 자비심 내세요

혜인 스님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 모두 돈 돈 합니 다. 행복의 척도를 돈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안달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벌려고 애써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돈 보다도 더 요물단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재물보다 더한 복덩이가 되기도 하고 재물보다 더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 짓는 말을 하는 것과 악업을 짓는 말을 하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행동을 항상 복 짓는 쪽으로 쓴다면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정진하는 데는 <천수경>만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천수경>은 일천천(千) 손수(手) 자를 쓰는데, 즉 천개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활동을 손으로 합니다. 밥 먹고 물건 만들고 다 손으로 하지요. 그런데 손 하나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처럼 관세음보살이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경이라고 해서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천수천안비경>을 줄인 말입니다. 손이 천 개요, 눈이 천 개요, 팔이 천 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 개는 꼭 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 개도 되고 그 이상도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눈과 팔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이 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살겠다는 것이니, 그 공덕은 무한할 수밖에 없지요.

욕심 많고, 남의 것을 탐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짙에 가면 '천수(千手)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우를 씻은 물을 받아 방 북판에 놓고 바로 그 위 천정 위에 천수다라니를 써서 붙입니다. 그러면 물동이에 글씨가 비치는데, 이 물을 바로 천수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욕심 많은 이에게 주면 오장육부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천수다라니는 그렇게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수지독송하면 15가지 나쁜 것을 막아주고, 15가지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15가지 나쁜 것은 굶주리거나 괴로움에 시달려 죽지 않으며,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않으며, 원수 맺은 이에게 보복당하여 죽지 않으며,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지 않으며,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으며, 독사나 지네 등 독한 곤충에게 물려죽지 않으며, 물이나 불의 재앙에 죽지 않으며, 독한 약을 먹어 죽지 않으며, 뱀속에 있는 독충독물에 죽지 않으며, 미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않으며, 산이나 나무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며, 나쁜 사람에게 홀려 죽지 않으며, 나쁜 귀신이나 사탄 귀신에 시달려 죽지 않으며, 나쁜 병에 걸려 죽지 않으며, 자살하거나 일체 비명횡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가지 좋은 인연은 가는 곳마다 어진 임금을 만나게 되고, 평화롭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며,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고, 항상 좋은 벗을 만나게 되며, 몸에 모든 기관이 구축하고 건강하고, 심신과 도심(道心)이 발하게 되고, 계율을 갖추어 어기지 않으며, 가정과 권속이 항상 화순하고,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고,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뜻대로 구하는 바가 다 이뤄지고, 용과 하늘과 선신이 항상 보호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뵈옵고 법문을 듣게 되고, 불법이 깊은 이치를 깨달아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려면 폭력을 쓰거나 내 생명을 아끼면서 남의 생명을 험부로 죽이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항상 자비라는 글자를 머리와 가슴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생명은 용서와 자비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조차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새가 허공을 날아가더라도 허공에



혜인 스님은 늘 인자한 모습이다. 후학들을 위한 마음도 그 모습만큼이나 여유롭다.

새 발자국이 없듯이, 내 가슴 가운데 미운 사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라도 흙으로 덮어주고 묻어주면 훌륭한 거름이 되듯이 잘못된 사람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훌륭한 복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할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지 못할 것을 참아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먼저 화해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공부가 제대로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아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회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회망을 풀는 것이요.

10년 20년 짚에 다너도 말버릇 고약하고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들은 저녁때마다 아내를 업어주면서 "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은인이고,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공덕을 베풀었으니, 이것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불편해지는 것이 없는지 늘 살피면서 부처님 대하듯 해 보세요.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것보다는 못한 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모든 이를 아끼고 편안케 하는 것이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출세보다는, 부귀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는 지나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정을 느끼면서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며 사는 사람은 공든 탑이 돼서 영원히 상대의 가슴에 항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5>



이것도 직업입니까?

그날도 버스에 올라 열려진 창으로 들어오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바람을 즐기며 눈앞 가득 펼쳐진 연초록의 나뭇잎들이 낮이 빠져 있었습니 다. 그런데 흰가 붉은 글씨의 작은 꽃말이 눈앞에서 희 자났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이라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빨간 글씨의 꽃말은 나무마다 높게 걸려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서 있을 때에야 나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못 받은 돈"
이 네 글자와 전화번호가 철쪽보다 더 붉고 선명하게 쓰여서 푸르디푸른 신록의 자연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기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돈을 떼었다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내 전화번호는 000-000-0000입니다"라는 문장을 겨우절미 딱 네 글자로 요약한 것이지요.

그 꽃말을 보자니 '참 별 길 다 직업으로 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먹고 살 일이 막막한 남의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려

로 하는 일. 생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 개성의 발휘 및 자아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행하는 노동 또는 일.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 발휘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입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다소 딱딱한 정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고, 자기의 개성과 능력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활동으로 이 사회가 좀 더 유익하고 발전되는 것, 이것이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살겠다며 아무 일이나 딱지는 대로 하는 것이 '직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섯 가지 좋은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 하니, 그것은 첫째는 재산을 모으는 데 [求財]에 게으르지 말며, 둘째는 재산을 지키기 [守財]에 게으르지 말며, 셋째는 몸을 보호함 [護身]에 게으르지 말며, 넷째는 이름을 보호함 [護名]에 게으르지 말며, 다섯째는 법을 행함 [行法]에 게으르지 않는 것"을 가사지른 제57권이러는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롭게 살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현수막이 걸렸네요 '돈'만이 목적이라 못된 짓이요, 악업입니다

다하는 일로 제 발발이를 할까 싶어서 그 꽃말을 붙인 사람이 측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부른 감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용인된 이자율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그 역시 하나의 반듯한 직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 '못 받은 돈'이란 네 글자에는 너무나 어둡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직 '돈'만이 목적이고 그 돈을 둘러싼 권력과 위협과 절망과 범죄의 기미가 느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부터 익히고 그런 다음 재물 늘릴 직업을 가지며, 그 직업으로 재산을 갖춘 뒤에는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장아함경 11권)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으로 스스로 생활을 경영해야 하니, 곧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혹은 글씨·글·산술·그림을 그리는 일 등의 이런 저런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힘쓰고 수행하는 것"(잡아함경 제3권이 바로 살아갈 방도를 완전히 갖추는 일이라는 경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직업이란, '경제적인 소득 즉 대가를 목적으로

이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명예롭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에 대해 해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흐릿하게 해주는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앙굿타라 니카야에서는 "채가신자는 다섯 가지의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무기의 판매, 살아있는 목숨의 판매, 고기의 판매, 술의 판매, 독의 판매이다(AN.III)."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선업을 짓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악업을 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선업과 바른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이웃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못된 짓이요, 악업인 것입니다.

■ 이미형(중국경원역경연구원)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점 을 받 처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짐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 험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 『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글_장용철 / 그림_고삼 창병례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점 을 받 처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